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

윤 정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농업개황

1.1. 지형

영국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레이트브리튼 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아일랜드 섬(북아일랜드)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 국가이다. 서쪽으로 대서양이, 동쪽으로는 북해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의 도버 해협(Strait of Dover)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인접해 있다. 남북으로는 북위 49도에서 52도에 이르며 동서로는 동경 2도에서 서경 8도 사이에 놓여 있다. 수도는 런던이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수도는 각각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에 위치한다<그림 1 참조>.

지형적으로는 동남부의 저지와 북서부의 고지로 크게 나뉜다. 잉글랜드는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남부 저지대로 면적은 영국 전체의 약 56.7%인 130,395km²이고 해발 300m 이하의 낮은 구릉과 평야로 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북부 고지대로 78,789km²이며, 서부 고지대인 웨일즈는 20,758km², 북아일랜드는 14,160km²이다. 고지라고 해도 대부분 고

* (jhyoon@krei.re.kr 02-3299-4119).

도 1,000m 이하의 낮은 산맥 및 구릉으로서 영국에서 가장 높은 벤네비스 산(Ben Nevis Mt.)도 1,343m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적 농업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잉글랜드는 면적의 3/4이 농업지역이다. 동부는 넓은 개방 경작지 형태로 평원이 넓어 주로 곡물을 생산하고 서부는 담장이 있는 초원(enclosed grassland fields by fens)에서 소와 양을 방목하여 사육한다. 스코틀랜드는 혼합농업지역이다. 동부는 곡물과 채소를 경작하고 서부는 거의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남서부 지역은 양과 소 등을 키워 소득을 높이는 축산 농가들이 많다. 이 지역이 영농농가보다 축산농가가 많은 이유는 스코틀랜드 남서부 지역의 농경지면적 중 84%가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¹⁾으로 유럽에서는

그림 1 영국 행정구역지도



자료: 구글지도(www.google.com).

1) 우리나라의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임. 육지면적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이상인 법정리를 의미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지역을 나타냄.

이 지역을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런 지역은 농업대신 축산업 또는 낙농 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웨일스는 6,000km²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 중 80%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양·육우 산업이 발달했다. 북아일랜드는 면적의 약 75%인 10,000km²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농업은 제조업, 조선업 등과 더불어 중요 산업 중 하나로 북아일랜드 인구의 3%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영국 인구의 1.3%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북아일랜드는 상당한 농업자원을 다른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혼합농업이 우세하며, 농가 수입의 대부분이 가축 사육에서 얻어진다.

1.2. 기후

기후는 중위도 대륙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로서 멕시코 만류(灣流)와 편서풍 때문에 위도에 비해서는 따뜻하다(1월의 기온 6~3℃). 그러나 겨울에는 간혹 섭씨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며 여름에는 섭씨 35도까지 오르기도 한다. 영국을 북위 54°선과 서경 4°선으로 4등분하면, 북동부는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고, 남동부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온난하나 조금 춥다. 북서부는 여름은 서늘하지만 겨울은 따뜻하고, 남서부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따뜻하다. 월별 평균기온은 북쪽은 12~2월이 4℃, 여름인 6~8월은 12℃이지만 남쪽은 겨울 최저기온이 5℃, 여름의 최고기온은 16℃이다. 대도시의 경우, 남쪽인 런던은 1월이 3℃, 7~8월이 17℃이고 북쪽인 에든버러는 1월이 2℃, 7월이 14℃이다.

영국은 1년 내내 습도가 높고, 전국의 평균 연강수량이 1,100mm에 이르는데, 지형 및 해안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역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대서양에 면한 서부와 북부는 강수량이 많고, 동부는 적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스코틀랜드 서안으로 강우일수는 연간 250일이나 되며, 총 강수량은 2,000~4,700mm이다. 그러나 동부로 갈수록 적어져서 잉글랜드 동부지방은 600~700mm에 불과하다. 비는 연중 고루 내리는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가 비가 가장 적고 9월부터 1월까지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1.3. 인구

2011년 기준 영국의 총 인구는 6275만 명²⁾으로 세계 22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10년간 대규모 이민자 유입과 베이비붐으로 인한 것이다. 영국의 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참조>. 각 국가별 전체인구대비 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수의 비율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1 한국과 영국의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수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수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수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수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수
한국	3,274 (6.7%)	2,966 (6.1%)	3,187 (6.5%)	2,899 (5.9%)	3,117 (6.3%)	2,852 (5.8%)	3,063 (6.2%)	2,793 (5.7%)	2,962 (6.0%)	2,726 (5.5%)
영국	952 (1.6%)	490 (0.8%)	940 (1.5%)	483 (0.8%)	929 (1.5%)	464 (0.8%)	918 (1.5%)	466 (0.7%)	907 (1.4%)	476 (0.7%)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인구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농가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비율은 증가하고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국 농촌도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연령대별 농가인구의 현황

구 분	2000	2003	2005	2007	2010
35세 미만	5	3	3	3	3
35~44세	18	15	14	12	11
45~54세	26	24	23	23	25
55~64세	26	29	29	29	29
65세 이상	25	29	31	33	32
평균 나이	56	58	58	59	59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2) 한국 2011년 기준 4977만 명으로 세계 25위를 차지함. 세계은행 참조(www.worldbank.org).

1.4. 농지

영국의 농지 면적은 영국 전체 토지의 70%를 차지하는 1,719만 ha이고 이 가운데 작물 경작면적은 36%이다. 경작면적의 50%이상은 곡물을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지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유지작물로 재배 면적이 26% 증가한 78만 5천 ha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표 3 영국의 농경지 현황

단위: 1,000ha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경작면적	6,071	6,091	6,016	6,106	6,258
곡물	3,274	3,076	3,013	3,075	3,142
유지작물	621	600	686	742	785
감자	144	144	138	146	149
원예작물	170	170	169	175	172
기타	527	616	604	534	500
5년 미만 사용 초지	1,141	1,241	1,232	1,278	1,357
휴경지	194	244	174	156	153
자연방목지	1,238	1,237	1,228	1,199	1,200
영구초지	10,395	9,996	9,980	9,858	9,725
방목돼지 사육면적	—	—	10	9	7
총 농지면적 (국가토지면적 당 비율)	17,703 (73%)	17,325 (71%)	17,234 (71%)	17,172 (70%)	17,19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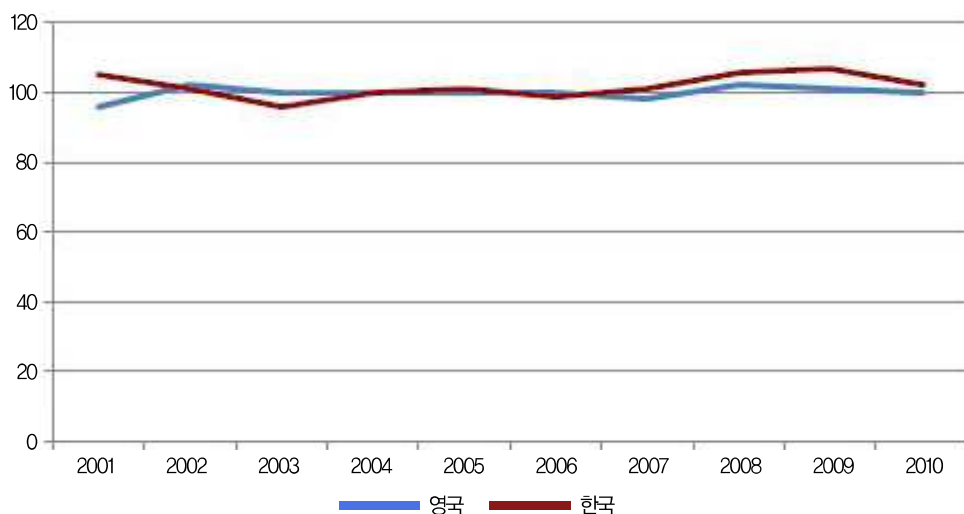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2. 농업생산과 무역

2.1. 생산

2001년 이후 한국과 영국의 농업생산지수 변화 추이를 관찰 한 결과 양국 모두 농업 생산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한국의 농업 생산지수는 영국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영국보다 농업생산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한국과 영국의 농업생산지수 추이



주: 농업생산지수는 2005=100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표 4 곡물의 생산·무역·소비 현황 추이

단위: 1,000 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생산					
면적(1,000 ha)	3,274	3,075	3,013	3,076	3,142
생산량	24,283	21,618	20,946	21,484	19,515
수입					
EU국가	1,537	1,677	1,535	1,361	2,346
비EU국가	1,057	814	678	707	765
수출					
EU국가	3,016	3,274	3,945	2,908	1,827
비EU국가	446	176	518	238	317
국내소비	20,505	20,585	21,032	20,435	20,846
곡물자급률	90	90	90	91	86

주: 곡물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수입량)*100.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영국은 밀,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을 재배한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전체 곡물면적대비 밀과 보리의 면적은 각각 63%, 33%이다. 곡물 재배면적은 완만하게 변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비EU국가보다는 EU국가와의 무역교류규모가 크다. 영국의 곡물 생산량은 대부분 국내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최근 5년간 곡물자급률은 90%에서 86%로 하락하였다<표 4 참조>.

2.1.1. 밀

밀의 2012년 재배면적은 1.2%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13%감소하였다. 더불어 식량자급률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인 88%를 차지했다. 2012년 밀의 작황은 가뭄, 일조량의 감소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밀의 공급부족과 고품질 밀에 대한 수요 증가는 수입산 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2012년 밀의 수입은 2011년 대비 98% 증가하였다<표 5 참조>.

표 5 밀의 생산·무역·소비 현황 추이

단위: 1,000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생산					
면적(1,000 ha)	2,080	1,775	1,939	1,969	1,992
생산량	17,227	14,076	14,878	15,257	13,261
수입					
EU국가	645	780	642	493	1,358
비EU국가	603	610	469	409	427
수출					
EU국가	2,389	2,378	2,908	2,125	1,282
비EU국가	376	156	427	162	221
국내소비	13,573	13,742	13,885	13,589	14,110
밀 자급률	93	91	93	94	88

주: 밀 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수입량)*100.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2.1.2 보리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0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2년은 각각 3.3%, 0.5%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리자급률은 완전자급률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표 6 참조>.

표 6 보리의 생산·무역·소비 현황 추이

단위: 1,000 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생산					
면적(1,000 ha)	1,032	1,143	921	970	1,002
생산량	6,144	6,668	5,252	5,494	5,522
수입					
EU국가	107	120	115	129	162
비EU국가	11	10	-	-	-
수출					
EU국가	489	850	940	724	494
비EU국가	70	19	91	76	96
국내소비	4,952	5,100	5,366	5,101	4,917
보리자급률	98	98	98	98	97

주: 보리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수입량)*100.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2.1.3. 축산물

영국의 연도별 가축 사육두수는 2009년 감소하고 2010년에는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과 돼지의 사육두수는 2011년 대비 각각 1.8%, 0.9% 증가하였다. 암컷 양은 1,486만 두에서 1,522만 두로 2.4% 증가하였고, 암돼지의 생식능력 개선으로 번식력이 강해 도살용 돼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표 7 참조>.

표 7 가축사육두수 현황

단위: 1,000 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10,107	10,025	10,112	9,933	9,900
양	33,131	31,445	31,084	31,634	32,215
돼지	4,714	4,540	4,460	4,441	4,481
가금류	166,200	152,753	163,867	162,551	160,061
합 계	214,152	198,763	209,523	208,559	206,657

주: 소의 사육두수는 젖소와 암소를 합한 수치임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2.2. 농산물 무역연망

영국의 농산물 무역규모는 2003~2012년 사이 413억 파운드에서 557억 파운드로 약 35%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입액도 2003년에 280억 파운드(47조 9천억 원)에서 2012년 376억 파운드(64조 3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액도 2003년 132억 파운드(22조 6천억 원)에서 2012년 182억 파운드(31조 1천억 원)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농산물 수출은 최근 10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무역에서의 적자폭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영국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2008~2012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3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13,228	12,870	15,934	17,194	18,738	18,179
수입	28,037	30,426	36,928	36,540	37,886	37,589
무역수지	-14,809	-17,556	-20,994	-19,346	-19,148	-19,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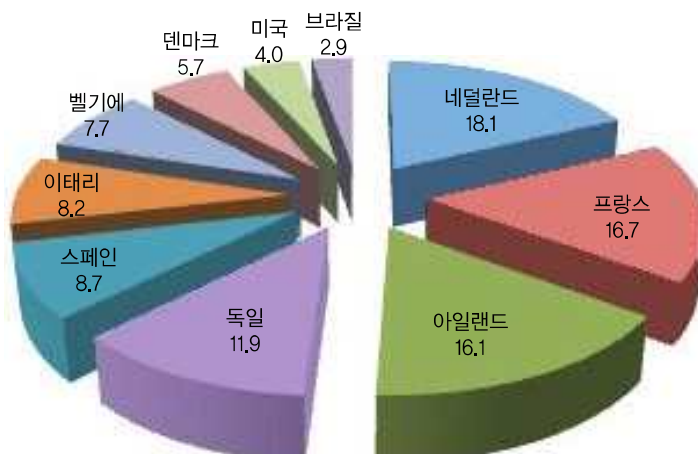
주: 1파운드는 한화로 1,702,04원임(2013년 9월 기준).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영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대상은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등으로 주로 EU국가들과 교류 한다. 영국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EU국가들이다<그림 3 참조>. EU국가들의 수출액 규모는 비 EU 국가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수출액의 6.3배 규모이다. 영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은 네덜란드

이다<그림 4 참조>.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이 있다. 비 EU국가로는 미국과 브라질이 포함되었다. EU 국가들의 수입액은 비 EU국가들 수입액의 13.6배로 규모의 차이가 난다. 무역대상국가 중 수출과 수입대상국 모두에 비 EU 국가인 미국이 포함되었다.

그림 3 영국의 농산물 수출대상국 비중: 2007~2012년 평균

단위: %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그림 4 영국의 농산물 수입대상국 비중: 2007~2012년 평균

단위: %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최근 영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주류를 포함한 음료, 곡물, 육류 등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의 수출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각각 3%, 7%, 8% 감소하였다. 반면, 2011년 대비 2012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유지류, 사료용, 커피·차로 각각 23%, 12%, 2% 이다. 2003년에서 2012년 까지 수출 증감률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유지류(114%), 육류(96%), 사료용(84%)이고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된 품목은 당 품목으로 최근 10년간 17% 감소하였다<표 9 참조>.

표 9 영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음료	4,689	4,592	5,596	6,077	7,005	6,804
곡물	1,800	1,516	2,014	2,098	2,094	1,940
육류	808	930	1,403	1,520	1,728	1,584
어류	1,193	1,157	1,325	1,461	1,511	1,350
기타	915	951	1,131	1,186	1,215	1,215
낙농품	1,018	890	950	1,124	1,285	1,168
커피·차	841	823	1,005	1,095	1,125	1,149
유지류	431	393	472	575	747	921
과일·채소	633	714	861	879	910	855
사료용	443	446	664	702	726	816
당	458	459	514	478	393	378
합 계	13,228	12,870	15,934	17,194	18,738	18,179

주: 1) 당은 천연설탕, 설탕과자, 천연꿀, 인조꿀, 감초가 포함됨
 2) 기타는 마가린, 쇼트닝, 소스류, 식초류, 스프류, 효모류, 파스타류 등이 포함됨
 3) 음료에는 모든 종류의 주류가 포함됨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최근 영국이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과일·채소, 육류 등이지만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각각 2%, 3% 수입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된 품목은 곡물로 13% 증가되었다. 반면, 최근 10년간 수입증감률이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기타품목, 커피·차, 곡물 등으로 각각 77%, 70%, 60%이다<표 10 참조>.

표 10 영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과실/채소	6,601	7,321	8,188	8,275	8,344	8,208
육류	4,506	4,808	5,649	5,513	5,914	5,734
음료	4,449	4,666	5,052	5,107	5,126	5,162
곡물	1,862	1,908	2,802	2,558	2,627	2,976
커피/차	1,599	1,809	2,630	2,716	2,889	2,713
낙농품	2,059	2,281	2,667	2,682	2,664	2,658
어류	1,926	2,355	2,473	2,448	2,641	2,565
기타	1,422	1,548	2,485	2,326	2,508	2,524
유지류	1,255	1,300	1,857	1,794	2,111	1,992
사료용	1,209	1,244	1,760	1,853	1,748	1,780
당	1,149	1,187	1,366	1,269	1,316	1,277
합 계	28,037	30,426	36,928	36,540	37,886	37,589

주: 1) 당은 천연설탕, 사탕수수, 천연꿀, 인조꿀, 감초가 포함됨.

2) 기타는 마가린, 쇼트닝, 소스류, 식초류, 스프류, 효모류, 파스타류 등이 포함됨.

3) 음료에는 모든 종류의 주류가 포함됨.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영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와인, 위스키와 같은 주류음료와 축산물이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수출증감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쇠고기로 2003년 대비 1,900% 증가되었고 와인, 돼지고기, 우유·크림 등은 각각 220%, 123%, 98% 증가하였다. 반면, 2003~2012년 동안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밀, 신선야채, 버터 등으로 각각 59%, 16%, 14% 감소하였다. 반면 밀은 2003~2012년 동안 수입이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가뭄과 높은 기온의 지속으로 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높은 품질의 수입산 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표 11 참조>.

영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은 곡물, 밀, 신선채소, 신선과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수입증감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연어, 우유·크림, 가공육, 밀, 곡물 등으로 각각 464%, 264%, 106%, 81%, 65% 증가하였다. 반면, 최근 10년간 수입이 감소된 농산물 품목은 양고기, 위스키, 베이컨·햄으로 각각 23%, 18%, 15% 감소하였다.

표 11 주요 품목별 수출입물량 추이

단위: 천 톤

품 목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위스키	수입	16	17	16	16	16	15
	수출	278	302	311	305	361	345
와인	수입	1,220	1,260	1,295	1,365	1,371	1,329
	수출	25	32	58	90	88	80
치즈	수입	316	378	419	436	414	438
	수출	90	104	105	113	124	126
가금육	수입	347	382	340	381	412	393
	수출	268	259	258	270	295	297
가금육 제품	수입	142	206	241	255	279	293
	수출	25	31	38	38	46	46
쇠고기	수입	269	236	231	238	235	236
	수출	6	41	83	110	144	120
밀	수입	985	1,028	1,390	1,111	902	1,785
	수출	3,662	2,117	2,533	3,335	2,287	1,503
양고기	수입	112	114	116	101	88	86
	수출	76	87	96	89	96	95
돼지고기	수입	381	459	360	363	373	349
	수출	69	95	104	131	144	154
곡물	수입	62	93	110	105	108	102
	수출	162	175	171	158	161	150
우유·크림	수입	53	124	158	193	215	193
	수출	312	621	539	561	648	617
베이컨·햄	수입	303	264	323	313	280	258
	수출	14	10	21	24	34	16
버터	수입	118	147	96	102	100	104
	수출	44	36	27	27	36	38
계란· 계란제품	수입	70	78	90	75	68	101
	수출	18	13	23	24	17	18
산선채소	수입	1,312	1,893	823	1,871	1,975	2,059
	수출	103	83	78	95	89	87
산선과일	수입	2,976	3,470	175	3,229	3,347	3,408
	수출	78	177	153	142	149	110
연어	수입	11	44	53	50	57	62
	수출	74	54	71	83	96	100

주: 1) 위스키와 와인 단위는 백만 리터를 말함.

2) 연어는 훈제연어를 포함함.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3. 농업정책

3.1. 직접지불금 제도

영국의 직접지불금 제도는 생산연계와 생산비(非)연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지불금의 많은 부분이 생산비(非)연계 직접지불금제도로 농업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생산연계 직접지불금은 곡물보조금(Crop subsidies)과 축산물 보조금(Livestock subsidies) 제도가 있고, 생산비(非)연계 직접지불금은 단일직접지불금(Single Payment Scheme), 농업환경조치(Agri-environment Scheme),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Less Favored Areas support schemes), 가축재해보상(Animal disease compensation) 등이 있다. 특히, 생산비(非)연계 직접지불금 제도 중 농업환경조치 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직접지불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연계 직접지불금					
곡물보조금	8	14	7	5	0
축산물 보조금	49	23	22	22	24
생산비(非)연계 직접지불금					
단일직접지불금	2,580	2,948	2,746	2,747	2,576
농업환경조치	486	475	517	536	520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	134	135	138	123	122
가축재해보상	17	33	17	18	20
기타	-	2	27	1	-
합 계	3,275	3,618	3,473	3,453	3,263

주: 가축재해보상에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도살지원도 포함됨.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와 농업환경조치는 지방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영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는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원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잉글랜드는 2010년 이후 지원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농업환경조치도 행정구역별로 직접지불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기 다르다<표 13 참조>.

표 13 세부사업별 직접지불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조건불리지역지원조치						
잉글랜드		23.8	24.0	24.3	7.7	5.6
웨일스		29.7	25.1	24.9	24.7	24.3
스코틀랜드		58.9	63.0	63.7	66.4	66.9
북아일랜드		22.0	22.5	24.9	24.4	25.2
농업환경조치						
잉글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0.5	—	—	—	—
	지방외곽 관리 지원	84.9	82.8	70.6	53.1	37.2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53.3	41.7	47.6	39.4	30.7
	환경 관리 지원	222.0	226.6	266.2	320.7	340.7
웨일스	유기농 농가 지원	6.0	4.2	7.2	4.9	4.2
	경관보존 지원(Tit Cymen)	0.1	—	—	—	—
	경관보존 지원(Tir Gofal)	22.0	0.7	26.3	26.7	24.4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1.9	2.2	0.9	0.3	0.3
	경관보존 지원(Tir Cynnal)	6.3	8.6	7.2	7.1	7.3
	경관보존 지원(Glastir)	—	—	—	—	7.1
스코틀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4.7	2.6	2.1	1.7	0.7
	지방외곽 관리 지원	2.6	1.8	0.8	0.2	—
	지방 관리 지원	17.3	13.0	7.8	4.0	0.8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3.6	2.7	1.5	0.6	0.2
	국토 관리 계약 지원	20.0	17.8	17.1	6.6	0.3
	국토 관리 옵션	—	0.4	0.9	3.5	6.9
	우선순위 지방 지원	—	4.4	22.2	31.8	34.0
북아일랜드	유기농 농가 지원	0.3	0.1	0.1	—	—
	지방외곽 관리 지원	18.5	16.2	22.7	20.2	15.6
	환경적 중요 지역 지원	7.7	6.5	7.6	8.4	6.6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더불어, 2008년에서 2012년 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평균 70%로 영국 농가의 소득 대부분은 직접지불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표 14 참조>.

표 14 소득 대비 직접지불금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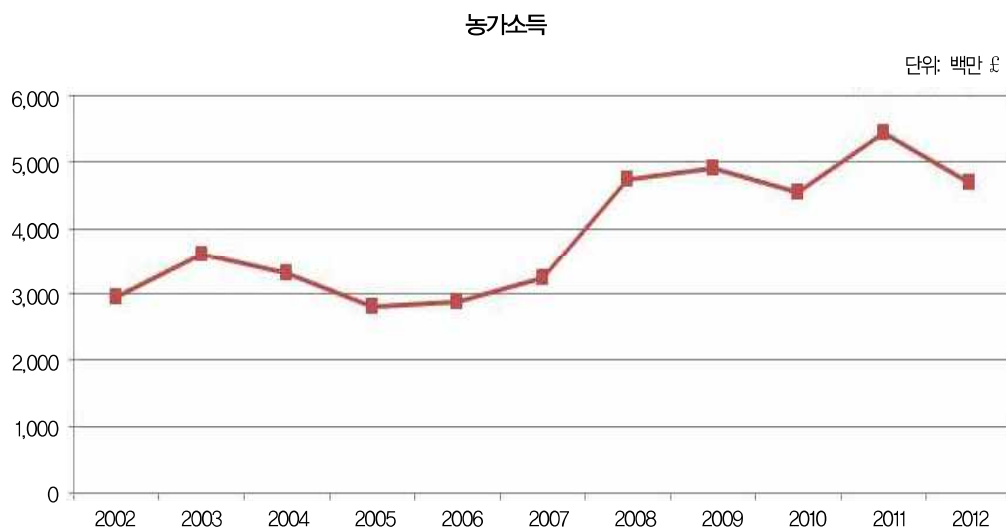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접지불금(a)	3,275	3,618	3,473	3,453	3,263
소득(b)	4,740	4,902	4,557	5,441	4,704
비중 %(a/b)	69	74	76	63	69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3.2. 소득

영국의 농가소득은 2000년대 초반에는 다소 완만한 증감세를 보이다 후반부터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 참조>. 2011년은 2010년 대비 19% 증가하였지만 2012년 다시 14%감소하여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다. 2012년 농가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파운드-유로 환율변화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불되던 직접지불금의 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의 증가 때문이다(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by DEFRA 2012).

그림 5 농가소득 추이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www.defra.gov.uk).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 농업과 농정현황을 통해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농업은 농지이용 측면에서 초지의 비중이 2/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곡물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86%의 자급률은 섬나라란 지형적 특성 아래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영국의 호당 경지면적 규모 80ha는 서부유럽 최대 수준이며, 이는 기계화 등을 통한 기업농 형태의 상업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규모화와 생산성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 평균 연령도 59세로 한국의 64세보다 젊고, 연령분포도 한국의 경우보다 고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CAP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시장 중심의 개혁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다.

셋째, 영국의 농산물 무역은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역내 무역이 중심이다. 선진국의 무역패턴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특성처럼 가공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非)가공 원료 농산물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무역의 특성과 관련해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축산물 강국으로서 영국 농업은 가축질병이나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광우병 파동의 근원지였던 영국은 이밖에도 구제역이나 GMO와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끝으로 농업정책 측면에서 영국은 CAP의 틀 속에 직접지불 중심의 보조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지불 가운데 농가소득과 직결된 단일직접지불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국은 농촌 경쟁력 확보와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강조해 왔다. 특히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지원정책과 다양한 농업환경조치는 이를 잘 나타낸다. 농업 전통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돌담이나 유적지에 대한 보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영구초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R.A.E North 지음, 김영옥 옮김. 2012. 영국농업의 붕괴. 교우사.

DEFRA. 2010.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0*. DEFRA.

DEFRA. 2011.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1*. DEFRA.

DEFRA. 2012.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2*. DEFRA.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atabase (www.defra.gov.uk)

FAO. FAOSTAT (www.fao.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